산문 밖의 禪

한봉석 목조각장

(58 · 경기도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제49호)

‘비수갈마’ 꿈꾸는 佛母…



세존은 도리천에 계셨다. 돌아가신 마야부인을 예경하고 석 달 동안 천인들을 위해 설법을 하기 위해서였다. 지상에서는 부처님이 계신 곳을 몰라 소동이 일었다. 코살라국의 우전왕은 부처님이 너무나 그리워 부처님을 대신할 불상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자 비수갈마천이 내려와 전단향으로 불상을 만들었고, 우전왕은 조석으로 예불했다. 후에 부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니 불상이 부처님께 자리를 내어 드렸고, 이에 부처님께서는 불상을 바라보시며 “말세에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하셨다.-〈증일아함경〉 권28 외 다수 경전에 기록- 불상의 기원이다. 처음으로 불상을 조각한 이는 제석천의 신하인 비수갈마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불상을 조각하는 일은 비수갈마의 계보를 잇는 것이리라. 이 시대의 비수갈마를 꿈꾸며 사는 이가 있다. 40년 넘게 불상을 조각해온 경기도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제49호 한봉석(충북대학교 대학원 문화재과학과 겸임교수)이다.

박도일 수필가 jwpark4284@daum.net

14세에 나무와 칼을 만나다

경기도 남양주의 불국조각원. 폭염 속에서 칼끝이 쉴 새 없이 나무 위를 지나간다. 칼을 쥐고 있는 이는 한봉석 목조각장. 칼끝에서는 깎인 나무 조각들이 떨어져나가고, 떨어진 나무 조각들 위에는 굵은 땀방울이 떨어진다. 그리고 칼이 지나간 자리에는 나한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월정사 북대에 모실 오백나한목각후불탱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대작불사다.

“칼을 잡은 지 어느덧 40년이 넘었네요.”

비수갈마를 꿈꾸는 한 목조각장의 삶은 그가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공예사에 취업하면서부터 시작된다. 1972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소년 한봉석은 진학 대신 부친의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의 공예사에 취업한다. 아직 세상이 업어주어야 할 어린 한봉석이었지만 그는 작고 여린 등으로 세상을 업어야 했다. 시대가 그랬다. 대부분의 삶이 다급했고, 주저할 시간이 없는 시대였다. 소년 한봉석이 일을 시작한 공예사는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곳이었다. 어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작은 일들이었다. 복사기가 없던 시절이어서 선배들이 그려준 도면을 일일이 손으로 그려 복사본을 만들었고, 하루 종일 선배들이 깎아놓은 조각품을 사포로 다듬어놓아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도면을 그린 것이 저에겐 미술 수업이 되었고, 칼이 지나간 나무를 다듬으면서 나무와 조각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의 작은 손에는 하루하루 상처가 끊이질 않았다. 1년여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도 마침내 사포를 놓고 칼을 잡기 시작한다. 한 목조각장이 어린 나이에 세상으로 나와 처음으로 만난 것은 바로 나무와 칼이었다.

천수천안을 보며 불모의 삶 시작해

천수천안. 그것은 새로운 세계였다. 한 목조각장이 조각칼을 잡은 지 5년이 되던 1977년, 그는 이구예술원이라는 곳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된다. 그곳은 불상을 비롯한 불교조각품을 만드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불상, 즉 불교조각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이 바로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다.

14세 목공예사 입사 조각입문

“불교조각, 불교부터 알아야”

독립 후 조계사불교대학 입학

1992년 불교미술대전 입상

불자도 아니었고, 불교도 잘 몰랐던 한 목조각장이었지만 그에게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은 조각의 진지한 모티브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모티브는 조각가 한봉석의 영원한 테마로 이어진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목조각장에게는 의문들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틈틈이 책을 찾고, 선배를 찾고, 절을 찾았다. 그렇게 그는 불상과 불교조각 그리고 불교에 조금씩 다가갔다.

불상이나 불화를 조성하는 사람을 흔히 ‘불모(佛母)’라 부른다. 부처님을 만들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 목조각장은 불모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이후로도 한 목조각장은 불상을 비롯한 불교조각을 계속하게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조성하고 지장보살을 조성하고 문수보살을 조성한다. 하지만 작업이 계속될수록 불교조각에 대한 그의 의문은 그 깊이를 더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조성하면서 항마촉지인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고, 지장보살과 문수보살의 얼굴을 그들의 깊은 내력을 알지 못한 채 조성해야 했던 것이다. 늘 불사의 회향 끝에는 아쉬움이 남았다. 생업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그 의문들을 모두 해결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어지는 생업의 고단함 속에서도 틈틈이 그 의문들을 풀기 위한 노력을 놓지 않았고 그 의문들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자신만의 불교조각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1992년 한국불교미술대전에서 입상하며 불모로서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다.

조계사불교대학 입학

1993년, 그는 불국조각원을 열며 독립한다. 그리고 그는 독립과 함께 또 하나의 발심을 하고 실천에 옮긴다. 조계사불교대학에 입학한다. 그가 그 동안 불교조각을 하면서 가지게 되었던 의문들은 불교를 모르는 데서 온 것들이었다. 풀지 못한 그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부터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악마를 항복시키고 지신을 불러내시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심정에 다가가야 항마촉지인을 제대로 조각할 수 있고, 지옥이 텅 빌 때를 기다리는 지장보살의 심정이 되어야 지장보살의 표정을 조각할 수 있고, 미욱한 중생을 일일이 살피는 문수보살의 마음씨를 알아야 문수보살의 지혜로운 얼굴을 조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조각할 땐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어야 하고, 지장보살과 문수보살을 조각할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불교. 종합. 쇼핑몰.





서울 성북구 보문로38길11 동일하이빌 B1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

붓다북 02. 953. 7181.